

“민주화를 위해 싸운 5·18 영령들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발 한발 밟을 때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대표로 꽃을 올릴 때 심장이 쿵쿵거렸다. 대표로 꽃을 드린다는게 꿈같고 떨렸다.
헌화가 끝나고 5·18묘역에서 무덤을 보던 중 나와 비슷한 또래들도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이 대단하고 만약 내가 나라가 위험할 때 나도 나라를 지키려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생각도 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 현장 탐방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역사 수업

양서준

5·18민주화운동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고 결초보은을 하겠다.

이도현

5·18 묘나 이런 묘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봐서 좋았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슬펐다.

김민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궁금해졌다.

김지아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윤선아

5·18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중에 학생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학생인데도 광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맞서 싸우신 게 존경스러웠다.

정상익

직접 5·18국립묘지를 다녀와보니 속상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백한결

5·18에 가서 슬펐다.

김민결

5·18 묘역에 가기 전에 5·18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계엄군이 길가다 놓고 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시위하던 사람들을 죽이는게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렸다. 또 계엄군한테 화가 나기도 했다.

이지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슬펐다.

이윤석

왜 5·18때 학교를 가지 않게 했나요?

이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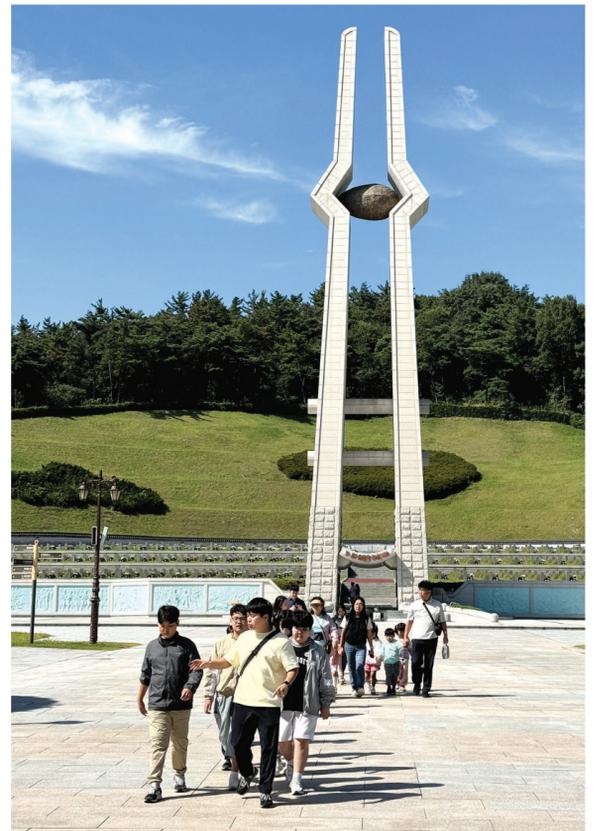
5·18 묘역에서 울컥했다.

김민결

5·18때 이렇게 많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났다.

김찬후

5·18 묘역에서 잠깐 행진하고 꽃을 헌화할 때 차분하고 웅장한 노래가 흘러 나왔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슬퍼서 눈물이 쫄 났다. 그때 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민주화가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느낀다.



■ 이태석 신부님 묘소를 가다

“신부님 묘소에서 슬프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김지아
이태석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인상깊었다.

정상익
저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도와줄 거예요.

김민준
이태석 신부님 훌륭합니다.

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 가서 아이들을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주시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다. 지금은 치료받은 몇몇 아이들이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나도 뿌듯했다.

김찬후
5·18 묘역처럼 행진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꽃을 향아리같은 거에 꽃을 때 기본이 좋았다.

김민결
이태석 신부님의 묘소에 가서 슬프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다.

이도현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해주신 이태석 신부님 사랑합니다.

이지현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이태석 신부님을 본받고 싶다.

김정미
이태석 신부님 봉사하러 가신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복을 베푸신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윤선아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께 본받고 싶은 점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할 일을 직접 나서서 병을 치료하고 신발을 만들어 주신 것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본받고 싶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사랑합니다.

이한별
이태석 신부님 이제 편히 쉬세요.

양서준
이태석 신부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백한결
이태석 신부님 만나서 좋았다.

김민결
이태석 신부님 묘소에 가지전 영화를 보

이윤석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뵙지 못해 아쉬워요.